CRAFT TREND FAIR 2019

2019 공예 트렌드 페어

취재 이혜진 | **자료제공** 디자인문화진흥원 www.kcdf.kr, Space B-E www.spacebe.co.kr

지난 12월 12일부터 15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2019 공예트렌드페어'가 열렸다. 이번 전시에는 국내외 5개국을 대표하는 공예작가 1600여 명과 320여 개의 공예 기업 및 단체가 참여했다. 행사장은 각기 다른 범주에 따라 주제관, 쇼케이스관, 창작공방관 등 총 8개의 공간으로 구성되었다. 주제관에서는 페어의 테마인 'Object, Objects...'에 관한 전시가 진행되었다. 한 공예품은 누군가가 쏟은 수많은 시간과 사유를 담고 있다. 테마 전시는 공예품이 가진 물성과 함께 그것이 가진 생산 과정과 환경, 존재하고 있는 공간과의 관계성 등 공예를 둘러싼 여러 가지 요인에 주목했다. 이번 페어에서는 국내외 문화예술 전문가들이 세계 공예의 최신 흐름과 유통, 마케팅 분야 정보를 소개하는 세미나와 더불어 공예시장의 현주소를 파악할 수 있는 '2019 국제공예포럼'이 진행되었다.

주제관

Object, Objects...
최주연 감독 인터뷰

©Space B-E, Hwayoung Kim

주제관에 전시된 작품들은 어떤 기준으로 선별되었나.

결과로서 나타나는 작품의 아름다움보다는 스토리가 있는 작품들을 모았다. 하나의 물성을 가지고 오랜 시간 작업한 작가들과, 물성의 탐구를 통해 새로운 시도를 하는 젊은 공예가들을 함께 구성해 스펙트럼을 넓혔다. 물성 자체에 대한 깊은 이야기들이 있는 작가들을 섭외하려고 많이 노력했다.

공예를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전시를 기획했나.

공예는 단지 하나의 오브제에 그치지 않고 외부 환경과 조응하며 다양한 맥락 속에서 존재한다. 한 가지의 물질을 표면의 모습으로만 평가하는 것보다 그것이 만들어지기까지의 과정과 재료에 대해 깊이 탐구하고 사유한 작가들의 수고를 바라봤으면 한다. 사실 공예를 정의한다는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공예가 가진 가능성과 깊이를 한정시키는 것 같기 때문이다. 현대미술, 조형, 공예의 경계가 융합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 경계를 너무 구분 짓지 않았으면 좋겠다.

주제관에 흐르는 음악이 인상적이다.

'Contextual Object'라는 곡이다. 전시를 위해 직접 작곡했다. 일렉트로 사운드 디자이너인 김희범과 11개의 장면을 하나로 이어줄 수 있는 곡을 궁리했다. 시간과 물성을 주제로 잡고, 재료들로 인해 생겨나는 사운드나 물과 바람 같은 자연의 소리를 통해 기승전결의 흐름을 구성했다. 사람들의 동선에 따라 느린 템포와 빠른 템포로 변화하며 각각의 공간을 유연하게 연결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음악에 더해 향, 조도 또한 세밀하게 연출해 이번 전시의 의도를 최대한 온전히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

공예품은 작품과 상품으로서의 가치를 동시에 지니고 있다. 두 가치를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이라 생각하나.

딱 뭐라고 정의내리기 어려운 시대가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 최근식 작가의 작품을 통해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다. Facet과 Shelf No.는 함께 전시되어 있지만 Facet은 단 하나의 공예품만이 전시되어 있고, Shelf No.는 여러 개의 동일한 공예품이 나란히 진열되어 있다. 작가는 공예품이라는 것이 고급 예술을 소비하는 일부에게 국한되지 않고 많은 사람들에게까지 흘러갔으면 했다. 직접 경계를 구분 지어 보여주기보다는 작품을 통해 이 시대에 질문을 던져보고자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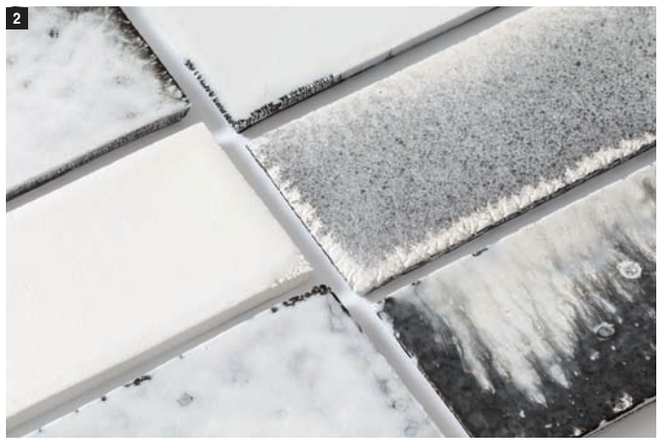
이번 주제관 전시를 통해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정리하자면.

작품이 가진 이야기 한 줄은 그 작품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을 가지게 한다. 우리는 너무나 빠른 시대에 살고 있다. 빨리 보고, 빨리 사진 찍고, 그것을 또 빠르게 인터넷에 업로드하면서 '나는 이런 예쁜 물건을 소유하고 있어'라는 피상적인 생각을 한다. 많은 이들이 이제는 이런 것들에 지겨워하고, 지치고 있다. 나는 그 이유가 스토리가 빠진 표피의 아름다움만을 추구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닐까 생각한다. 이번 전시를 통해 작품 자체보다는 물질과 공간이 만나 이루는 관계성과 시간에 대해 주목한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공예뿐만 아니라 모든 게 마찬가지이다. 많은 것들에 진정성이 담긴다면 좋겠다. 너무나도 빠르게 생산되고 소비되는 이미지들 사이에서 미의 기준이 정해지고 있다. '왜 만들었을까'라는 물음으로 시작해 작품을 천천히 관람하고, 그 배경과 형성과정 자체를 즐길 수 있었으면 한다. 어떤 사람에게 매료된다는 것은 그 사람과의 대화, 교감을 통해 일어나는 일이다. 작품에 접근할 때도 이런 시각을 가지고 다가갔으면 좋겠다.

1

2



주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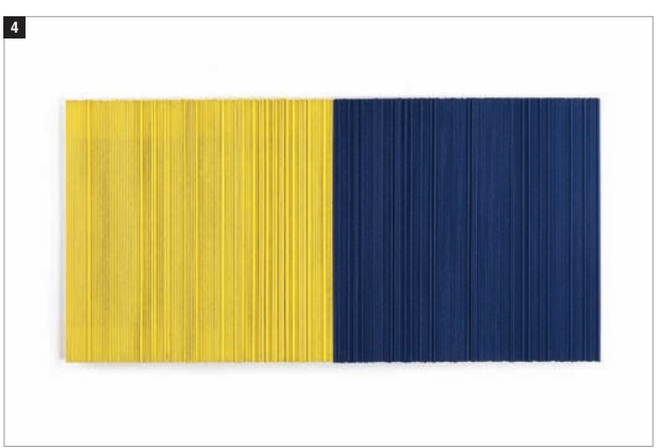
Object, Objects...

주제관에서는 'Object, Objects...'를 테마로 공예품이 가진 일련의 과정과 시간, 이야기를 다룬 전시가 열렸다. 공예품을 하나의 물질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담고 있는 시간의 흐름과 작가의 사유에 주목했다. 물성과 시간, 공간이 서로 영향을 주며 만들어내는 작품의 의미와 가치는 물질 자체가 가진 표면의 아름다움보다 더 깊은 작품성을 지닌다. 총 12명의 작가가 참여한 전시는 11개의 신(Scene)을 통해 구성되었다. 각각의 공예품은 나무, 유리, 도자, 금속, 실 등 각기 다른 소재로 만들어졌지만 모두 같은 곳을 바라본다.

3

01_ 허명욱, 시간이 만들어 내는 색 Layers of time
02_ 곽혜영, 비소리를 보다_비오는 날 See the sound of rain_rainy days
03_ 신명덕, 손이 기억하는 것들 Things my hands remember
04_ 신혜림, 시간의 비가 내린다. As time goes rain falls
05_ 최근식, 패싯 Facet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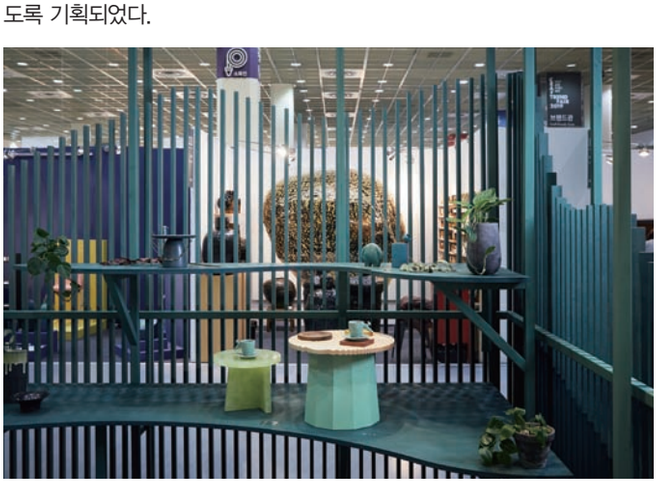
5

06_ 최근식, 쉘프넘버 Shelf No.
07_ 한선주, 담양의 흔적 Traces of Damyang
08_ 안나리사 알라스탈로, 어 터치 오브 윈터 A touch of winter
09_ 최정유+조규형, 루즈 그리드 Loose grid
10_ 류연희, 강하거나 부드럽거나 Strong or soft
11_ 김계옥, 제2의 표면 Second surface
12_ 김혜정, 심피(心皮) Carpel

쇼케이스관

시간의 잔상

참가 업체의 작품들을 모아 구성한 쇼케이스관은 '공예산업 활성화'라는 페어의 목적을 더욱 공고히 했다. '시간의 잔상'을 주제로 기획된 전시 공간은 다양한 종류의 공예품들로 개인의 취향에 대한 이야기를 담아냈다. 취향이라는 단어를 '살아온 삶의 시간과 경험의 흔적'으로 해석하며, 유행이나 보편적인 시선에서 잠시 벗어나 자신만이 가진 온전한 취향을 발견할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



01_ 이정빈, 도깨비1
02_ 안해익, 모네의 연못
03_ 김태희, 윤곽항아리
04_ 한동엽, VVV ban
05_ 원유선, 내부를 보호하는 방법
06_ 김혜린, Container i